



▶ 초원을 가로지르는 르완다 아이들

제공: WMM

함께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이들 모두 어딘가를 향해 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려오고 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신나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만나게 될 그 무엇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지켜보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 막 울타리를 넘으려던 한 아이는 뒤에 있는 아이를 돌아보며 함께 가자고 손짓한다. “빨리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놓인 울타리 좁은 거짐없이 넘어간다. 다른 곳에 한 눈 팔 시간도 없다. 나를 만족시켜 주고 우월하게 만들었던 울타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못한다.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신이 나 달려가는 길에 여전히 울타리 안에서 우물쭈물 하는 사람이 보이면, “빨리 와! 참 좋으신 아버지께

로 함께 가자!” 소리치겠지.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셔!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에게 함께 가지 않을까?” [GNPNEWS]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22)

창간 9주년 기념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7)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불행하신가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결혼하기로 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드리고 싶군요. 이 글을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쌍씩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결혼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혼여

행에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은 누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내? 부부간의 불화는 항상 이 패권 다툼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생각이 옳고 남편은 자기 의견이 옳아서,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내도 남편도 자기 가정의 주인이기를 포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없습니까? 있다면 누가 가정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과 가정을 아름다운 질서와 완전한 사랑 속에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도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당신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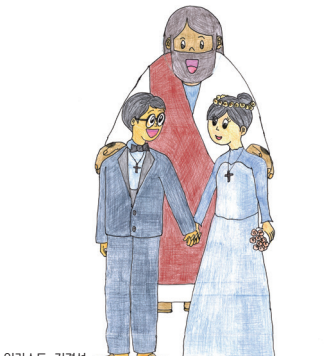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中, 십계명을 시진핑 연설로 교체

공산당이 신(神)이 되는 마지막 단계

중국 당국이 교회 십계명을 시진핑의 어록으로 대체토록 한 사실에 대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는 공산당이 신이 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라고 우려했다.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 비터윈터에 따르면, 중부 허난(河南)성 뤼양(洛陽)시의 한 현에 위치한 삼자교회가 정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고 십계명을 시진핑 주석의 어록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당에 복종해야 한다. 당신이 반발한다면 교회는 즉시 폐쇄될 것”이라는 통일선선공작부 직원들의 훈시까지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자에 따르면, 신자들의 의사에 반해 십계명이 중국의 거의 모든 삼자교회와 예배소에서 제거되어 시진핑의 어록으로 대체되었으며 일부 삼자교회는 정부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아 폐쇄됐다. 한 삼자교회의 설교자는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근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침식함으로 삼자교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자교회의 상황과 관련, “정부가 첫 단계로 취하는 것은 종교

대련(對聯, 특정 문구를 적은 좁고 긴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에 국기를 게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게시하라고 지시함으로 ‘4가지 요건’을 실행하게 한다. 이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지막 단계로 십계명을 시진핑의 연설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2015년 5월 18일의 중앙통일선선공작부 실무 회의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로 인도하고 중국 문화를 스며들게 하며, 서구 사상의 침투를 단호히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극단주의 사상이 끼치는 영향에 저항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GNPNEWS]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이사야 44:9) **기도** | 신이 되려고 하는 중국 공산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자기들의 수치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일러스트=김경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가정에 참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아내도 남편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는 기쁨과 참 사랑의 가정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주를
 품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돋어서 접은 전도편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복음과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2019 다시복음앞에 '십자가 복음'앞에 서다

일일금식기도성회로 10.31 선한목자교회에서



▶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 전경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감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2019 다시복음앞에 집회가 10월 31일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일일금식기도성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강사로는 하도균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 이웅남 선교사(WMC선교회),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 강정구 선교사(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지부)가 맡는다. 2011년에 처음 열린 '다시복음앞에' 집회는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 복음기도동맹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복음과 기도를 삶의 중심 가치로 채택하여 2년마다 진행돼 왔다. 첫 번 모임인 2011년 대회는 오직 은혜의 복음, 2013년 대회는 오직 성경, 2015년 대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매회마다 3000~4000여 명이 참여했다. 2016년에는 나라의 위중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주제로 일일금식성회로 진행됐다.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온전한 믿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번 대회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성경적, 역사적, 실천적 관점 등으로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온전히 드러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됨을 청취하게 된다. 복음기도동맹은 자신을 '예수생명'으로 고백하며 복음과 기도를 신앙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현재 1만 2400여 명이 선언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 동맹은 이 같은 내용을 신앙고백으로 정리한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수, 선교 등 7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GNPNEWS]

UMC, “동성결혼 목사 안수 시행땐 교단 떠나야” 79%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79%가 교단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시행하면 교회가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미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가 평신도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결혼 시행시 교회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 74%, 소극적 동의 5%, 미정 9%, 반대는 소극과 적극을 합쳐 12%로 나타났다. 또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은 교단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시행해도 자

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동성애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 답변은 25%로 나왔다. 그리고 교단이 헌법을 바꾸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시행할 때 자신이 속한 교회가 교단에 남는다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답변도 75%(적극·소극동의 포함)로 나타났다. 특히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관련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진보(동성애 지지)와 보수(동성애 반대) 교단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4%로 나왔다. 이에 반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교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20%, 떠나야 한다는 답변이 66%를 차지했다. 한편,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2월 교단 특별총회에서 더욱 보수적인 내용이 추가된 전통주의 플랜의 장점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연합감리교회 내 동성애자 결혼 예식과 집례 및 목사 안수 후보자 허입금지 조항에 목사 안수, 파송금지, 감독 선출 및 임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성결혼 허용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지지하는 그룹과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그룹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GNPNEWS]

논란의 연세대 인권 강좌, 2020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그동안 젠더 이데올로기 의무수강으로 논란이 됐던 연세대학교의 온라인 '인권 강좌'가 2020학년도부터 의무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된다. 이 강좌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연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

따르면 학교 측은 19일 오후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개설된 이 강좌의 시범강의를 청강한 연 원장은 한 언론을 통해 “이 과목의 강사 김현미 교수가 여성 폭력을 곧

젠더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현 정부를 지지하면 인권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편견과 왜곡으로 얼룩진 강의라고 평가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8~9.21)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한국, 동성애자 위한 퀴어여성게임즈 열려

'퀴어여성네트워크'가 여성과 성소수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기고,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는 의미의 여성 성소수자 체육대회인 '2019 퀴어여성게임즈'를 지난 8일 KBS 제2 체육관에서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주님, 잘못된 가치를 소수로 포장하며 권익을 추구하고며 죄악을 확산시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려 주시길 강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땅에 교회와 증인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호주 동부서 이틀간 화재 140건 중 일부 방화 의혹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 지역에서 방화 등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최근 이틀간 140건 발생했으며 특히 퀸즐랜드의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85건의 화재 중 적어도 8건은 방화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하나님, 자연재해가 아닌 악한 마음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꽃같은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된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음을 믿는 믿음을 호주 땅에 일으켜 주십시오.

영국의 한 부부, 성 고정관념 피하러 아이 성별 비공개

영국 서머셋주에 사는 제이크 잉글랜드 존(35)과 호빗 험프리(38)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가 성과 관계없이 본인만의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아이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 성별을 주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자아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함을 부모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드론 전투 시대 열렸다”

이달 14일 사우디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석유 시설을 강습한 드론 공격에 대해 “드론 전투 시대가 열리며 체트기 제일주의는 종말을 앞뒀다.”며 작고 값싼 무인기는 최근 전쟁, 특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전선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주님, 생명의 변화 없는 인간의 기술력이 진보될수록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과학기술이 최고조에 달했던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9월 29일 ~ 10월 12일

9월 29일 ~ 10월 5일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9.29(12~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9.30~10.1(10~17시) ▶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0.1(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0.1,3(10~12시) ▶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10.2(06시)~3(06시) ▶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0.4(10시)~5(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10.4(12시)~5(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0.4(20~22시) ▶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0.5(06~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10교회 진행중.

10월 7일 ~ 10월 12일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10.7(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0.7(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0.7,9~12(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0.8(0~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0.8(10~12시) ▶ 경기 의정부 / 녹양교회(정**)010-8700-9233, 10.8~11(09~12시,20~2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0.10(10~15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그외 1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미국인들, 낙태를 지지하는 넷플릭스를 거부하다

가족, 기독교 신앙 등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서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1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에서 탈퇴했다. 넷플릭스가 낙태를 지지하며, 전통적인 가족 윤리에 정면도전하는 가치관에 기반한 영상제작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넷플릭스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 할리우드 거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회개했다. 아멘' 팻말을 들고 외치는 거리 전도자

미국 라이프사이트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시민들의 움직임의 출발은 심장박동법(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조지아주에서 넷플릭스가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는 등 조지아주 경제에 의도적으로 충격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데서 비롯됐다.

넷플릭스의 테드 사라도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조지아주가 심장 박동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지아의 영화산업을 철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전통적인 성윤리를 거부하고 있는 디즈니사, 타임워너 같은 좌파적 이념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는 조지아주에서 이 법을 공격한 최초의 메이저 스튜디오였다.

이 같은 넷플릭스의 입장에 이어 낙태 찬성론자인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주도하는 할리우드 배우들은 법안 통과 시 조지아주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이러한 할리우드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할리우드, 낙태 금지법 통과시킨 조지아주 영화산업에 제동

조지아주에 대한 할리우드 기업들의 공격을 지켜본 시민들은 넷플릭스 불매운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활동에는 눈을

감았다. 낙태를 지지하는 좌파 일색인 미국 주류언론의 이 같은 행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유명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과 같은 매체는 대표적인 좌익 매체로 노골적으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며, 좌파적 관점으로 뉴스를 해설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여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사업개시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시장가치가 160억 달러나 감소했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멤버십서비스 요금 인상(2달러), 미국 스트리밍 시장의 포화상태, 오래된 TV쇼 폐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넷플릭스 불매를 선언하는 가입자의 급증이 이 같은 넷플릭스의 분기 보고서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인의 약 50%는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할리우드 거대기업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세속적 인본주의를 지지하는 소수 의견을 등에 업고 낙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미국인들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좌익 기업 및 단체의 활동은 1960년대 이후부터 뚜렷하게 증가해왔다. 당시 형성된 미국의 급진 좌파는 무신론적 문화도대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미국의 좌익 집단은 이제 공공정책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제동을 거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침묵시키고 싶어 하고 있다.

이 같은 좌익 집단의 활동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원리인 헤게

모니 이론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자신이 원하는 세계적인 공산혁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다.

물론 당시 문화 헤게모니는 자본주의 종말론을 경고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종교와 민속 전통에 의해 뒷받침됐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국가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가치관이 문화적으로 패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혁명이 성공하기 전에 공산주의의 이상을 사람들이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정치 없는 정치'라고 불렀고,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정신적 멘토라고 인정한 미국 좌파 인물인 사울 알린스키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1971)'을 펴낸 사울 알린스키는 조직운동가로,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전제하면 나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 폭력투쟁도 정당화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서너명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왜 할리우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적인지를 설명해준다. 즉, 그들은 미국의 전통 신앙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종교적 상징과 전통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탱크와 핵무기로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할리우드는 서구 문화와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파괴를 통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전 세대와 다음세대를 돌볼 수 있는 도덕적인 부부, 종교, 이런 도덕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가족 제도는 마르크스의 지침을 따라 마르크스주의 국가를 꿈꾸는 할리우드 엘리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할리우드, 신앙을 공격하고 전통을 파괴하다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긴다. 넷플릭스는 낙태에 거부감을



사진: freepik

갖는 보수적인 미국인의 혐오감을 그렇게 뻔뻔하게 모욕하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라이프사이트뉴스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국을 변화시키겠다.'는 버락 오바마의 선거공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기간 보수적인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연방법원,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미 국세청(IRS), 미 내무부(DOI), 미 연방수사국(FBI), 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미 보건복지부(HHS) 및 기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동원했다. 오바마는 집권 중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도널드 J.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 좌파와의 긴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다. 트럼프의 당선은 문화적, 정치적 좌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트럼프가 군대 복무한 적이 없고 세 번 결혼했고 도덕적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를 가지긴 했지만, 강한 애국적인 자세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지지하며 미국인이 도덕적으로 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급진 좌파들은 정치적인 힘을 잃었거나 혹은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 직책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현장은 정치권에서 문화권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후임으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차기 대권으로 선출하는 데 실패한 뒤, 넷플릭스의 도움으로 하이어 그라운드라는 영화사를 설립했다. 넷플릭스의 지원규모는 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는 영화 제작 경험이 없지만, 넷플릭스 레인메이커 계약 외에도 세계 1위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도서 출판 펍과 도서 거래로 받은 6500만 달러도 투입했다. "재산을

주위에 나누고 싶다."던 오바마는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 과연 그렇게 사는 듯하다.

그러나 냉철하게 말하자면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 역할 외에도, 자신의 사리사욕에 관한 한 항상 현실주의자였다. 사울 알린스키는 이상주의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이 조직의 기본원칙이라고 가르쳤다. 오바마는 좌파 매체 뉴 리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성공한 조직을 만드는 비결은 사람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단지 공상적인 이상주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와 넷플릭스와의 암묵적인 돈벌이 관계만큼 권모술수의 사리사욕이 더 뚜렷한 곳은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 영화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다

넷플릭스의 2인자 테드 사라도스와 그의 아내 니콜 아반트는 2012년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70만 달러를 모금해 버락 오바마를 지원한 가장 중요한 자금원 중 하나였다. 2008년 대선에서도 니콜은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오바마 정부에게서 바하마 주재 미국 대사의 직책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오바마와 넷플릭스 연결고리에서, 리비아 벤가지 지역의 테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수잔 라이스 전 미국 유엔대사는 넷플릭스의 이사회에 임명되었고 불과 2개월 만에 오바마는 넷플릭스로부터 대형 거래를 제안받았다.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사람들은 IRS에 의해 넷플릭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좌파 성향 할리우드 엘리트 중 넷플릭스가 조지아주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넷플릭스 임원들의 뻔뻔한 정치적 성향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GNPNEWS]

번역 =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오바마의 멘토로 알려진 좌파 이론가 사울 알린스키(출처: wikipedia 캡처)

9주년 창간기념사

첫 마음을 9년간 지켜주신 주님... 다시 진리의 다림줄을 붙잡다

추석 연휴 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며, 두 자녀 모두 출가한 60대 중반 A씨(여)의 이야기다. 얼마 전 서울시의 모집공고를 보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년 근무기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임시직 공무원이 됐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이 이렇게 좋은 직업인줄 몰랐어요. 이렇게 돈을 주고, 저런 명분으로 돈을 주고, 엄청 많이 줘요. 2년이 끝나도 6개월간 실업수당을 준대요. 지금 서울에 그런 임시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관점의 소식이 뉴스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청와대, 고용회복 흐름 뚜렷... 자영업 대책 등 정책 성과 나타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 매체는 이런 현실의 이면을 분석했다. 최근의 고용통계는 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폭이 39만 1000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의 86%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취업한과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A씨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며칠 지나지 않아 눈으로 확인됐다. 관점의 차이인가 거짓말인가? 노인들의 고용증대를 한국 경제의 회복이라고 믿고 싶은 거짓말 수준의 정부 발표를 믿어야 할까?

그뿐 아니다. 본지가 창간된 9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을 덮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한반도의 영적 기상도가 본지가 창간되던 2010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다. 창조 직후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땅이 언제나 최악이 관영하던 곳이었지만,

노골적인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탈법은 더욱 대담해진 느낌이다.

성적 지향,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용어와 개념들이 버젓이 대중매체를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낙태를 불법시하고 간통을 범죄시하던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하면 썩대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기 일쑤다.

이 땅에서 6·25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공산주의 세력을 대놓고 칭송하는 무리가 정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친형과 친족은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상 등의 이유로 무참하게 죽이는 잔인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주류 언론에서 거리낌 없이 회자되고 있다. 또 한 가지, 거짓, 음란과 공산주의를 고무 찬양하는 일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합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복음이 이데올로기 하나 이기지 못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온 세상

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인간의 사상 중 영원한 것이 있는가? 단연코 없다. 아무리 좋고 옳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시대의 철 지난 생각일 뿐이다.

종교개혁을 주창한 루터와 칼빈의 사상과 주장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럴진대 봉건제와 자본제의 모순을 일거에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주의 이론의 마르크스와 레닌도, 동양사상의 정수로 여겨지는 유교의 물꼬를 튼 공맹(孔孟) 사상도 모두 ‘시대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시대, 그 일부 사람의 동의와 환호는 얻었는지 몰라도 그 발상의 첫 모습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다림줄을 제시하셨다. 지난 9년간 진리의 기준을 우리 심령에 띄우시며, 미디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달려왔다. 첫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역을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GNPNEWS]

발행인 김강호 선교사



선교 통신 | K국 (2)

국가의 양육비 지원금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거부감 없어

샤르르자트 마을은 과거 설탕 공장이 돌아갔을 때는 풍요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는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세평의 방이 양쪽으로 길게 이어진 4층 구조의 아파트인데, 한 층에 하나의 공동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습니다. 부엌은 따로 없고 방 한구석에 작은 상을 놓고 음식을 조리해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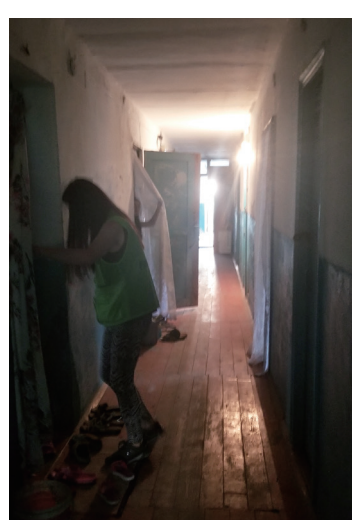
이 쪽방촌에는 혼자 사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적게는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열악해서 전기도 자주 나갑니다. 이곳에 사는 엄마들은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이곳보다 더 깊은 시골에서 직업을 찾아 나왔거나, 혹은 혼인해서 나왔다가 혼자 살게 된 경우입니다.

이곳에 밤이 되면 술 취한 남자들이 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마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갑니다. 물론 어느 쪽방에는 남편이 있는 집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창촌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이곳 자매들은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어쩌면 처음부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깨어진 가정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가난한 여성들이 혼자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K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신 인구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이 4만 2500원(13만 원)인데 미혼모가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출산수당 9만 5950원 + 첫째 자녀 육아휴직 1년간 월 1만 4544원 +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만 5541원을 받습니다. 최소 월 5만 원(15



▶ 엄마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쪽방촌 모습. 전등도 많지 않아 어두컴컴한 복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정의 출입문이 있다.

만 원)를 받고 둘째를 낳으면 점점 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기는 해도 이들에게는 생계가 보장되고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통해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쉽게 체득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K국에서 살았지만 이들의 아픈 사연들을 알게 된지는 2-3년이 안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풍습은 쉽게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외국인인 현지인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그들 안에 깊이 들어야만 발견되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제와 돌아보면 그동안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유일한 소망, 복음

저는 이들이 복음을 알고 현재의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삶을 떠나 새로운 생산적 체계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게 하려면 꽤 오랫동안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팔찌 교회 안에는 돈을 벌기 위

해 한국어로 간 남편을 두고 혼자 남아 아이를 키우는 고령인 엄마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과 직업이 필요합니다. 고령인 엄마들에게 먼저 벽지 바르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쪽방촌 K국 엄마들에게 벽지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가르치면서 먼저 믿은 고령인 엄마들이 무슬림인 K국 엄마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이들이 가득한 이곳에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어떤 꿈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주님의 몸 된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끝>

[GNPNEWS]

K국 = 오요한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죽으러 땅끝으로 가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박동하·지소영 부부(그안에진리교회)



©복음기도신문

김포의 한 유치원 마당에서 취재진을 맞으러 나온 박동하 목사를 만났다. 여기가 집이냐고 묻자 유치원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했다. 작년 말, M국으로 떠나기 위해 6년간 몸담았던 기독교대학을 떠나며 지소영 사모는 종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선 꼭 만나야 하니까 모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학교를 떠나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인도하심을 믿고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렇게 오게 된 곳이 게스트하우스였다고... 두 사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들여보았다.

- M국 선교를 준비하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박동하 목사(이하 박): “신학교 때, 친구에게 M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 나라가 씨앗처럼 심겨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엔 있고 있었는데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M국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 어떻게요?

박: “한국에서 일하는 M국 분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어 예배가 시작됐고 그 부서를 맡으면서 매년 국제심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고향에 못가고,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땐 한국에 있는 그 나라 분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그 땅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눈물바다가 되곤 했죠. 그런 일을 하면서 M국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신학교 때 들은 그 나라가 마음에 심겨지다

- M국 상황은 어땠나요?

박: “복음이 들어간 이후 교회는 급성장했지만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단적인 요소들과 섞이면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숫자적인 감소도 심각했어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선진국 교회의 형식적인 모습만 배워온 거였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도 하지만 정작 예

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땅의 다음세대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신 거군요.

박: “2010년 M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마비가 와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쩔 수 없이 파송을 미루고 다음 해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2011년 갑상선암, 2012년엔 방광암이 발견됐죠. 그때 병원 옥상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고요.”

-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소영 사모(이하 지): “9년간 섬기던 교회를 사임했고 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당시 아들이 기독교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은 저희 가족을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남편은 파트로, 저는 풀타임 교사로 일했어요. 계획에 없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때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도 만들고, 복음기도신문도 나눠주고, 주중에는 기숙사 창고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읽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군요?

박: “결과적으로 그런 시간이었죠. 저는 건강을 잃은 후 무덤에 내려간 자처럼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위룸(기도실을 위룸으로 명명한 기독교영화 ‘위룸’을 보고 붙인 이름)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죠.”

- 그 땅을 섬기면서 위기도 있으셨다면요?

지: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던 모든 재정을 그곳에 고아원을 짓기 위해 헌금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두 번째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며칠 지나자 기도

가 바뀌더군요.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은 재정과 관련된 사람조차 용서하고 품는 것이 선교라고 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선교라는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육체적 질병이 붙잡다

-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변함없을 수 있을까요?

박: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변함없이... 작년 가을 아내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 그 땅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M국에 꼭 가야 한다면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시라고요. 위룸에 들어가 엎드렸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그 사람들 사랑하니?” 주저함 없이 대답했죠.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니?” “예, 변함없습니다.” 저의 명확한 대답에 주님이 이런 결론을 주시더군요. 그들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변함없는데 더 이상 무슨 확증이 필요하냐고...”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여된 것 같네요.

지: “학교 사임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선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교회에서 남편에게 수석부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이 들어왔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두 번이나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이 거절을 하니 그럼 부목사로 3년만 섬기면 M국으로 파송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정중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애가 탔어요. 좋은 제안인데 왜

안가냐고, 그동안 존재감 없던 당신을 주님이 이제는 불러내어 쓰시려 하는데 왜 거절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누군가 불러주는 것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오래전에 죽었다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땅에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거처도, 파송교회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사임하게 되었죠.”

-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셨나요?

지: “작년 12월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종무식 마치고 저희 학교 중국 어선생님이 학부모님 한 분과 전화연결을 해주셨어요.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신 분인데 유치원을 지을 때마다 한 층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가림 다하고, 빛도 모두 갖고, 형편 좋아진 후에 하나님 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오는 날도 엄청 추웠는데 원장님 부부가 이삿짐을 날라주시고, 식사준비까지 다 해주신 걸 보면서 그때 진정한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거처문제가 해결되는 건 축복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주님이 쏘아부어주셨어요. 하늘이 열린 것 같다는 의미를 물으시기에 이렇게 답했어요. 값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셨거든요.”

- 두 분이 결혼하고 24년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지: “가정예배요. 결혼하면서 남

편과 둘이 시작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모양새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할 일 많은 날은 하루 쉬고, 부부싸움 한 날은 건너뛰고, 때론 형식상 드리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땐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가정예배를 이어온 지 어느새 24년이 흘렀네요. 돌아보면 가정예배는 순종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정예배로 준비하며 다시 파송을 앞두고

- 가정예배 특강도 나가신다면요?

지: “특강은 성경을 1장 읽고, 그날의 감사제목 5가지, 기도제목 3가지를 나누는 ‘153가정예배’와 암송예배, 말씀기도, 긴급기도, 요일별기도, 감사일기 등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나누고 있어요. 153나눔을 하면 우리 가족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해보시면 예배가 즐거운 시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즘은 강의의 나가면서 예배의 부흥이 각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 따님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 “학교에서 해외 연수를 가야 하는데, 경비가 매우 컸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M국 아이들은 한 달에 3만원으로 살아가는데 딸의 연수가 비교되면서 마음에 있는 부담을 아이에게 나눴어요.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계기로 홈스쿨을 결정하게 됐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쉽진 않았죠. 3년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언어공부에 주력하고, 아빠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선교훈련도 받고, 전문학사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요즘은 현지 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 자녀가 부모의 길을 응원하며 동역자가 되어줄 때 가장 기쁠 것 같아요.

박: “어느 날, 딸의 성경책에서 메모를 하나 발견했는데 참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내년 이 시간에 대학을 준비할지, 선교훈련’ (6면에 계속)



제공: 지소영 사모

▶ M국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꿈 (1)

“죄인들에게 무슨 꿈이 가당할까?”

1963년 8월 28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흑인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흑인들을 대변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서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후손과 그 주인이 낳은 후손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구부러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만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갈 때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존 밀턴은 꿈꾸던 그 날이 손에 잡힐 듯 보이다 끝내는 좌절된 상황에서 성경의 진리에 착념하여 ‘실낙원(Paradise Lost)’이라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찾았다.

하나님의 선민(選民)이었으나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이름뿐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으로 보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던 두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도였으니 주변 나라들은 더 말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저주의 굴레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죄와 죽음과 폭

력과 음탕과 약육강식의 먹고 먹히는 악순환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던 그때, 이사야의 메시지는 엄중한 심판밖에 없었다. 실로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무지하고 패역한 시대 한복판에서 암울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돌아오는 메아리도 없이 그냥 외쳐야만 했던 참 선지자 이사야의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 사이사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혀 피해갈 수 없도록 조목조목 선포되는 가운데, 생뚱맞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온다. 뒤섞여 있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문장도 안 맞고,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구도(構圖)였다. 인간 수준에서는 감히 이해할 수



일러스트=노주나

도, 상상도 할 수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어난 하나님의 꿈이었다. 아담의 저주를 받은 존재적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뿐이다. 죄인들에게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을까? (2017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Purchase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 전하다 그 땅에 묻히고 싶어요”

련을 받을지, 먼 이국땅에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만 아십니다. 올해와 같은 답답함일지, 큰 것을 잃는 고통일지, 무엇이든지... 설령 목숨이라도 아버지께 바칩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더군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몽글하더라고요.”

-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박: “단순하게 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가정예배와 성경적 성교육 강의를 하면서 그 땅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 사전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M국은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이어서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살거든요. 어디든 마찬가지로겠지만 그곳은 더욱 성경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요. 다음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싶은 소망이 간절합니다.”

-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박: “아내와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한데 우리의 연약함조차 선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도 안 좋는데 왜 가냐고 묻곤 해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죽으러 간다고 하죠. 그럼 더 이상 물질 없더라고요.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언젠가는 모두 육신을 벗는데 저도 복음 전하다가 그 땅 어딘가에 묻히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고 싶어요. 외국인은 어딜 가도 불편하잖아요. 혜택도 없고. 나그네는 늘 이동하니까 뭘 많이 가질 수도 없고요. 좀 불편하지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면서요.” [GNPNEWS]

Y.K.

▶결연후원사에서 아이들, 섬김이들과함께(제공: 지소영 사모)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8. 29 ~ 9. 18 (가나다 순)
개인
강인숙 권순효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일범 김정임 김정임 노은옥 박상기 박성규 박용자 안민자 안수경 유국주 은종숙 이동희 이미영 이삼연 이영옥 이인열 이준진 이지수 이진희 이현희 이형태 장근혜 정인호 정효진 조형광 주유순 차인순 최근희 최순덕 최정숙 하은숙 한홍자 홍광석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고려현의원 꿈이루는교회 땅끝공인 문광교회 복음기도선학연구소 산곡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쉼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은혜신일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험스바교회 OM조선국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을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불려주신 선교현전에서 인도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보게 된 열방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 같았다. 힌두사원에서의 모든 의식들과 역겨운 냄새들이 내 죄 된 옛 존재의 역겨움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탐욕에 눈 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힌두 제사장들은 곧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삶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 같았다.

작년 6월부터 어린 시절 살았던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막내 동생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비방하고 조롱했다. 60년 내 인생을 돌아보며 세상에 보여줄 것 없이 보잘 것 없는 인생인 거 같아 주눅이 들 때가 있었다. 어린 시절, 술 마시고 가족을 힘들게 하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분노

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게 물건과 돈을 훔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내가 왕이 되어 살았지만 정작 인정과 평판에 목이 마른 사탄의 노예 된 삶이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을 대면하는 일은 너무도 끔찍했다. 내 몸과 마음을 내던져 버리고 싶어서 음란한 것을 좇아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날들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하셨다.

내 죄 된 옛 존재의 삶을 마주하며

그러나 주님은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다. 남인도의 작은 시골마을의 교회당은 내 어린 시절 나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품 속 같았다.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언제나 말씀으로 힘이 되어 일어서게 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어 그 한줄기 빛을 따라 걷게 하셨다. 시린 겨울과도 같고 고난의 풀무 불같은 시간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음을 아웃리치 기간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긴 터널을 지날 때는 언제 이 터널에서 나갈 수 있을까 답답해하며 불평도 해 보았지만 다른 길로 나갈 수도 쳐다볼 수도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

치였음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 은혜

아웃리치가 끝난 지금도 계속되는 삶의 무게가 결국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임을 점점 알게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아시고 선택하신 생명, 창세전 원형으로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아 8:14) 이 말씀은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다. 곧 주님을 향하여 교회가 외쳐야 할 소리인 것을 알게 하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뜻인 줄 알게 되었다.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고 싶다. 아웃리치 때 찾아갔던 인도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의 예배를 소망했다. 그들과 함께 열방을 구하며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었듯이 지금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마라나타! [GNPNEWS]

원형숙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의 식량난?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북한의 꼼수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 상태로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는 세계 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와 달리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국제기구 보고서의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모퉁이돌선교회는 ‘정세와 선교’ 9월호를 통해 북한 주요 도시의 쌀값은 최근 6개월 사이 1kg당 1000원 가량, 즉 20%나 떨어졌다고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면 10년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비축미를 푼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에서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어 북한이 당장 시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국제무역센터(ITC) 통계에 따르면 금년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

입한 밀가루 등 식량이 담배나 과일보다 더 적었다. 밀가루 수입은 1644만 달러였지만 담배는 1765만 달러, 과일·견과류는 2600만 달러나 됐다. 쌀 등 곡물은 180만 달러에 그쳤다. 밀가루 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담배, 과일 등 기호 식품 수입은 해마다 늘었다.

최근 북한의 장마당 쌀값은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도 북한 식량난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내 놓고 있다. 세계은행 전 고문은 “북 무역 통계와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식량난으로 불만한 조짐은 없다.”며 “현재 식량 부족은 가뭄으로 인한 봄철 작물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연례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온 북한이 유독 이번에 대북 제재를 식량난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주민 고통이 외부에 부각되기를 원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제재를 흔들려고 식량 문제를 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식량 지원 근거로 삼는 것은 WFP가 밝힌 136만



▶ ‘세계식량계획(WFP)’이 식량 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열량 비스킷(출처: WFP 캡처)

t이 부족하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WFP가 얼마나 북측 사정의 진실을 확인했는지 의문이며 북한이 보여준 것만 보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WFP가 추산한 올해 북한 곡물 생산량은 490만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 생산량은 650만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에서 대량 기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모퉁이돌은 대북지원으로 남북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는 생각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쌀 5만t을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해 7월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WFP 평양 사무소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 쌀 거부’ 입장을 전했다. 과거 한국이 직접 주려던 식량을 거부한 적은 있어도 WFP를 통한 간접지원까지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종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빌미로 김정은이 약속했던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북 식량난이 정말인지 의심된다.”는 지적에도 식량지원을 밀어 붙였다. [GNPNEWS]



고통 속에 붙드는 믿음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 우리가 처한 문제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면 그 확신하는 바를 믿고 붙들라. 그리고 자신이 붙든 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말라.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RETURN to the GOSPEL

2019 다시복음앞에 금식기도성회

2019 다시복음앞에

십자가가 복음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경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 갈라디아서 6:14 |

2019.10.31(목) 오전 10시~ 오후 10시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십자가 복음' (갈라디아서 6:14)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가비 : 헌금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7707-9668, 070-4144-0104
이메일 gnpall@daum.net

강사진 | (가나다순)



강정구 선교사
(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부)



김경석 목사
(강서침례교회)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이용남 선교사
(WMC선교회)



하도균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